

제1절 교육 연혁과 여건

1. 조선시대

1) 관학교육기관

조선은 교육 면에서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고 부분적인 개혁과 재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문신과 무신의 양반 관료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문치를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해, 문신이 주축이 되어 모든 정치 체제를 이끌어 갔다. 조선은 국가의 지배 사상을 유교로 삼고, 이 사상에 입각한 사회 체제를 편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체제 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건국 초부터 농상의 장려와 흥학을 국가의 2대 치국 정책으로 채택³²⁴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지방 교육은 관학교육기관인 향교(鄉校)와 사학교육기관인 서원(書院), 서당(書堂) 등이 만들어졌다. 향교는 지방 군현에 소속되어 유학 정신과 유교적 윤리를 향촌 사회에 보급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조선 시대에 전국에 향교를 확충·설치한 목적은 첫째, 통치 체제에 필요한 관료 자원의 확보이고, 둘째, 새로운 통치 체제의 정치 이념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려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유교 이념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려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 특히 향교는 국가 통치의 기간 인재인 관료 자원의 확보와 지방의 교화 기관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처럼 향교는 유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에게 문과의 관문을 통과시켜 유교의 교양을 지닌 관료를 확보하는 수단이자, 비록 과거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조선시대 울진 지역에는 울진 향교와 평해 향교가 설치되었다. 울진 향교는 1484년(성종 15) 울진읍 읍내리 월변마을에 건립되었고, 도유사 1인과 장의 1인을 두었다. 1610년(광해군 2) 색장의 2인이 증원되었다. 1697년(숙종 23) 울진읍 고성리 성저동으로 이건했다. 1872년 (고종 9) 현 위치인 울진읍 읍내리 653-1[향교로 34-13]로 옮겼다. 1901년 도유사와 장의의 직제를 고쳐 직원 1명을 두었다가, 11년 후에 장의 8명을 다시 두게 되었다.

1878년(고종 15) 당시 군수인 최형직(崔炯稷)과 직원 남석화(南錫和)가 군내 유림과 함께 대성전을 중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성전과 동재를 제외한 명륜당·서재, 부속 건물 등은 전부 불탔다. 이후 향례와 집회를 할 때마다 불편하고 공간도 협소하고 노후 해 증·개축이 필요해졌다. 울진읍 소재 논 6두락과 교지 2필을 매각한 기금 1,600만 원을 기초로 해

324. 울진약사편찬위원회, 2002, 『울진약사』, 울진문화원, 417쪽

명륜당을 1979년 9월에 준공했다.

현재 울진향교에서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인 공자를 정위(正位)로 안자(顏子)·증자(增子)·자사(子思)·맹자(孟子) 4성(四聖) 등을 배향하고 있다.

평해 향교는 1357년(공민왕 6)에 저전(楮田) 반월산(半月山)[현 평해읍 동2리 반월산 아래 닥나무밭]에 세워졌다. 1409년(태종 9) 당시 군수 김한철(金漢徹)이 유림과 협력해 송릉(松陵)으로 옮겼다. 1470년(성종 1)에는 대성전(大成殿)이, 1474년(성종 5)에는 명륜당(明倫堂)이 지어져 향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612년(광해군 4)에 현 위치인 평해읍 성내로 이건되었다. 이후 1977년 전교 김이두(金利斗)가 중심이 되어 국비와 군비 보조금 1,000만 원과 전교 사제 480만 원을 확보해 태화루(太和樓)를 다시 짓고, 명륜당을 중수했다. 1981년 군비 보조금 500만원과 전교 사제 200만 원을 투입하여 묘사를 재건하였다.

현재 평해 향교에서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인 공자를 정위(正位)로 안자(顏子)·증자(增子)·자사(子思)·맹자(孟子) 4성(四聖) 등을 배향하고 있다.³²⁵

2) 사학교육기관

서원은 각 지방에 민간 중심으로 선현, 선사 및 선열(先烈) 의사(義士)에 대한 사묘(祠廟)를 설치하여 제향(祭享)을 행하고, 유학 교육을 통하여 유사를 양성하던 사립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서원은 사묘를 중심으로 하는 제향 기능과 강학소(講學所)를 중심으로 한 교학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닌 기관이다. 서원은 국가에 필요한 선비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서원의 교과 내용은 유학의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울진지역에는 고산서원(孤山書院)·옥동서원(玉洞書院)·옥계서원(玉溪書院)·신계서원(新溪書院)·몽천서원(蒙泉書院)·월계서원(月溪書院)·명계서원(明溪書院)·노동서원(魯東書院)·운암서원(雲巖書院) 등 9개 서원이 있었다.

325. 울진 향교와 평해 향교의 내용은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을 참조했다.

<표 167> 울진지역 서원의 건립 시기와 배향자

명칭	건립 시기	배향자	주소
고산서원	1628년(인조 6)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 서파(西波) 오도일(吳道一)	근남면 행곡리 구미
옥동서원	1574년(선조 7)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	울진읍 읍내리 옥계
옥계서원	1740년(영조 16)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석당(石堂) 김상정(金相定) 만은(晚隱) 전선(田銘)	울진읍 읍내리 옥계(최초) 북면 고목리 기곡(현재)
신계서원	1750년(영조 26)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계산(溪山) 김수근(金洙根)	울진읍 호월리
몽천서원	1693년(숙종 19)	우암(尤庵) 윤시형(尹時衡) 황림(篁林) 윤사진(尹思進)	원남면[현 매화면] 금매리 몽천
월계서원	1856년(철종 7)	매계(梅溪) 장말익(張末翼) 판서(判書) 장양수(張良洙)	가원동 울진읍 고성리(현재)
명계서원	1671년(현종 12)	대해(大海) 황응청(黃應淸)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	기성면 정명리
노동서원	1816년(순조 16)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기성면 황보리
운암서원	1826년(순조 26)	백암(白岩) 김제(金濟)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기성면 구산리

출처:『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 애국계몽운동기

우리나라에서 근대 교육의 시작은 1880년대 이후 신식학교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근대 교육 기관은 주로 사학 주도로 이루어졌다.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국가 주도로 교육 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면서, 공·사립의 교육 기관이 설립되고 근대 교육이 조선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의 제정에 따른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 등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895년 2월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가 반포되면서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되었다. 특히 근대 교육 기관이 체결되기 시작한 계기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의 요체는 ‘실력’과 ‘힘’을 길러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신교육운동이었다. 따라서 울진지역에서도 애국계몽단체나 지방 유지들이 신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근대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 세워진 대표적 교육 기관으로는 만흥

학교·대흥학교·명동학교·평명학교 등이다.³²⁶

<표 168> 애국계몽운동기 울진 지역의 근대 학교

학교명	위치	설립 연도	설립자	내용
만흥학교(晚興學校)	원남면 매화리	1907년 10월	주진수(朱鎮洙)	1910년 폐지
대흥학교(大興學校) ³²⁷	기성면 사동리	1908년 4월	황만영	1910년 폐지
만흥학교(晚興學校) ³²⁸	평해군	1909년	황두영	
명동학교(明東學校)	울진읍 읍내리 울진향교	1908년 9월		울진공립보통학교로 전환(1912년)
평명학교(平明學校)	평해읍 평해리 평해향교	1909년 3월		평해공립보통학교로 전환(1912년)

울진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근대 교육 기관은 만흥학교이다. 신민회 강원도 대표 이자 관동학회와 독립협회 회원으로 울진 지역에서 활동한 주진수가 구국에 대한 대의를 품고 지방 인재 양성을 통한 신문명 보급을 하기 위해 1907년 10월 경상북도 울진의 괴종육·남상정·전오규·주병웅·진규환·전주석·최정순·전명석 등과 함께 원남면 매화리에 세웠다. 정인숙·기태진·남정섭·박예철 등이 만흥학교에 초빙되어 강연을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울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만흥학교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다.³²⁹

1919년 4월 울진 매화리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한 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흥학교(晚興學校) 출신 학생이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매화리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한 전병겸이 바로 만흥학교 출신이다.³³⁰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독립공작단(朝鮮獨立工作團)에서 활동한 윤인보·남재수·안규원·황병문·김기풍 등이 바로 만흥학교 출신이다.³³¹ 이처럼 일제강점기 울진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 및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과 조선독립공작단 사건을 일으킨 주 세력 가운데 하나가 만흥학교 출신 인물들이다.

대흥학교(大興學校)는 1908년 4월 독립협회(獨立協會)·관동학회(關東學會)·신민회 소속 황만영이 설립하였다.³³²

애국계몽운동기 향교 장소나 재산을 활용해 근대 교육 기관을 만드는 것은 전국적 현

326. 권대웅, 1994, 「한말 경북지방의 사립학교와 그 성격」『국사관논총』58, 국사편찬위원회.

327. 황만영 기념비에는 1907년 평해군 사동에 대흥학교(大興學校)를 설립했다고 되어 있다.

328.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6일, 1면, 「황씨권한」에는 평해군에 사는 황두영(黃斗英)이 500원을 투자해 평해군 자기 동네에 만흥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329. 울진군, 1994, 『울진군지』, 521쪽

330. 한국학중앙연구원, 「3·1운동」,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일

331. 한국학중앙연구원, 「일제강점기」,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일

332. 울진역사편찬위원회, 2002, 『울진역사』, 울진문화원, 420쪽, 「황만영기념비문」

상이었다. 따라서 울진향교와 평해향교에도 역시 학교가 세워졌다. 명동학교(明東學校)는 1908년 9월 울진읍 읍내리 울진향교 내에서 설립되었다. 1912년 3월 6일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5월 25일 울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다. 당시 2개 학급이 편성되었고 학생은 53명이었다.³³³

평명학교(平明學校)는 1909년 3월 평해읍 평해리 평해향교 내에서 설립되었다. 강린(姜灝)이 평명학교 학감(學監)을 지내기도 했다.³³⁴ 평명학교는 1912년 평해공립보통학교(平海公立普通學校)로 승격되었다. 1912년 3월 6일 학교 설립을 인가받고 4월 15일 개교했다.³³⁵

3. 일제강점기

1) 일제의 식민교육정책과 울진지역 학교 설립 운동

일제강점기 일본의 교육정책 목표는 한인을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네 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제정, 공포해 한인을 일본의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도구로 길러내고자 했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에서는 보통교육[현 초등교육] 수업연한 축소, 보통교육과 기술교육[실업학교, 전문학교] 위주로 학제를 편성, 대학교육 불허 등 교육기회를 축소하고 한인의 우민화 교육을 시행했다.

한편,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되면서 한인 교육의 주도권을 한인이 아닌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사립학교령」(1908), 「사립학교규칙」(1911), 「서당규칙」(1918) 등을 제정, 공포해 학교 설립 및 운영 주체, 학교 운영 방법, 교원 임용 등 교육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한인이 만든 학교를 폐교하거나 설립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인의 민족 교육을 약화, 말살시켰다. 애국계몽운동기 교육구국의 일환으로 설립된 대다수 학교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다. 애국계몽운동기 울진에서 만들어진 만홍학교·대홍학교가 폐교된 연유가 이와 연관이 있을 듯하다.

1920년대 식민교육정책은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1910년대와 달리 ‘문화정치’를 표방해 동화정책과 유화정책을 실시했다. 형식상 ‘내지연장주의’를 내세워 일본 학제를 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한인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기회가 생겼다. 또

333.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8일 ; 울진초등학교(<http://school.gyo6.net/uljines>)

334. 오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 1913,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 誠文社, 811쪽

335.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8일 ; 평해초등학교(<http://school.gyo6.net/phes>)

한, 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은 일본의 제도에 따랐다. 새로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3면 1교제’, ‘1면 1교제’를 실시해 1910년대보다 더 많은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조선어’ 교육을 필수로 했다. 한편, 이러한 교육정책과 제도에는 일본식 교육을 강화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말살하고 일본에 동화하도록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등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 통치 방식도 바꿨다. 전시동원체제 하 일본은 민족말살정책을 본격화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교육령이 바로 제3차 「조선교육령」(1938)과 제4차 「조선교육령」(1943)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황국신민화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보통학교는 심상 소학교,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오늘날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바뀌었다. 또한, 일본어, 일본사, 수신, 체육 등 교과가 강화되었고, ‘조선어’는 선택 과목이 되어 버렸다. 또한, 사립중학교 설립을 불허하였다.

제4차 「조선교육령」은 전시동원체제하에서 직접 한인 학생들을 일본의 군국주의 전쟁에 참여시킨 교육령이었다.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을 교육목적의 주안점을 두면서 교육을 군사 목적에 합치시키는 교육체제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심상소학교는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모든 교육 기관의 수업연한이 축소되었고, ‘조선어’와 ‘조선역사’는 전면 금지되었다.

이런 일련의 일본의 교육정책과 제도는 울진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목표와 세부 정책이 잘 드러나는 학교 설립과 학제에서 그런 경향이 크다.

일제의 1910년대 초등교육기관 설립 원칙은 ‘6면 1교제’였다. 일제는 울진 지역에 새로운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 애국계몽운동기 울진 관민이 만든 명동학교와 평명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1912년 명동학교는 울진공립보통학교, 평명학교는 평해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해 ‘6면 1교제’를 실시했다. 만홍학교와 대홍학교를 폐교하고, 기존 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했기 때문에 울진 지역 근대 교육은 1910년대 오히려 위축되었다.

1920년대에는 매화면·기성면·온정면에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매화공립보통학교는 1922년 설립 인가를 받고 1923년 개교했다.³³⁶ 기성공립보통학교³³⁷는 1926년 9월 설립 인가를 받았고, 10월 1일 개교했다. 온정공립보통학교는 1929년 1월 14일 설립 인가를 받고 2월 16일 개교했다.³³⁸ 온정공립보통학교는 1925년부터 설립 움직임이 있었으나 4년 뒤인 1929년에 세워졌다. 울진읍내로부터 130여 리, 평해공립보통학교로부터는 약 40여 리 떨어져 있어 학령 아동들에게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이에 보교기성동맹회

336. 『동아일보』 1922년 7월 26일 「新設公立普通學校」; 『毎日申報』 1936년 5월 23일 「梅花公普校 六學級復活」

337. 『朝鮮總督府 官報』 4222 大正15年 9月 15日 「大正15年9月2日付左記公立普通學校設立ノ件認可セラル」

338. 『朝鮮總督府 官報』 0621 「昭和4年1月14日付左記公立普通學校設立ノ件認可セラル」

를 조직하고 기부금 4천 원을 모집해 교사 2교실을 짓고 교사 3명을 초빙해 학생 180여 명을 강습소 형태로 가르쳤다. 이후 4년 뒤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 신규로 한인 초등교육기관을 자발적으로 설립해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주로 그 지역 지역 유지나 면민들이 보교설립기성위원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모은 뒤 보교설립운동을 진행하면 설립을 인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울진지역에 본격적으로 초등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이다. 부구공립보통학교는 1932년 10월 8일 4년제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³³⁹ 12월 1일 개교했다.³⁴⁰ 삼근공립보통학교는 1934년 7월 21일 설립 인가를 받고,³⁴¹ 10월 1일 개교했다. 노음공립보통학교는 1936년 5월 2일 설립 인가를 받고³⁴² 9월 28일 개교했다. 죽변공립보통학교는 1937년 7월 29일 설립 인가를 받고,³⁴³ 9월 25일 개교했다. 후포심상소학교는 1937년 3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³⁴⁴ 월송국민학교는 1943년 6월 3일 설립 인가를 받고, 1944년 3월 25일 개교했다.³⁴⁵

<표 169> 일제강점기 울진군 초등교육기관 현황

기관명	개교	기관명	개교
평해공립보통학교	1912년 4월 15일	삼근공립보통학교	1934년 10월 1일
울진공립보통학교	1912년 5월 25일	노음공립보통학교	1936년 9월 28일
매화공립보통학교	1923년 3월 1일	죽변공립보통학교	1937년 9월 2일
기성공립보통학교	1926년 10월 1일	후포심상소학교	1937년
온정공립보통학교	1929년 2월 16일	월송국민학교	1939년 3월 25일
부구공립보통학교	1932년 12월 1일		

한편, 1931년 부임한 우가키[宇垣一成] 총독은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근로주의를 강화하고 내선일체를 체계적으로 이루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간이학교제도이다. 1934년 4월 1일 ‘간이 초등 교육 기관 설치에 관한 건’(「학비(學秘)」 제2호)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교육령」 제4조와 「보통학교 규정」 제6조에서 “훌륭한 일본 국민이 되게 하고, 국어

339. 『朝鮮總督府 官報』 1739 昭和7年 10月 24日「昭和7年10月7日附左記公立普通學校設立ノ件認可アリタリ」

340. 부구초등학교(<http://school.gyo6.net/bugues>)

341. 『朝鮮總督府 官報』 2274 昭和9年 8月 08日「昭和9年7月21日附左記公立普通學校設立ノ件認可アリタリ」

342. 『朝鮮總督府 官報』 2825 昭和11年 06月 15日「昭和11年4月27日左ノ公立普通學校設立ノ件認可アリタリ」

343. 『朝鮮總督府 官報』 昭和12年 9月 20日

344. 『朝鮮總督府 官報』 3512 昭和12年 6月 2일. 후포초등학교 누리집에서는 1939년 9월 20일 설립 인가를 받고 10월 30일 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37)에 후포공립심상소학교에 훈도가 파견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1937년에 개교한 것으로 보인다.

345. 월송초등학교(<http://school.gyo6.net/wolsonges>)

[일본어]를 읽고, 쓰게 할 수 있게 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간이학교의 설치 목적을 밝혔다. 따라서 193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마다 공립보통학교 부속으로 간이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울진지역에서는 보통학교 부설 간이학교가 1934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다. 1934년에는 울진공립보통학교 부설 신림간이학교(蔚珍公立普通學校 附設 新林簡易學校), 부구공립보통학교 부설 삼당간이학교(富邱公立普通學校 附設 三塘簡易學校)가 세워졌다.³⁴⁶ 1935년에는 매화공립보통학교 부설 송전간이학교(梅花公立普通學校附設 松田簡易學校)가 설립되었다.³⁴⁷ 1936년에는 울진공립보통학교 부설 화성간이학교(蔚珍公立普通學校 附設 花城簡易學校)가 설립되었다.³⁴⁸ 1937년에는 온정공립보통학교 부설 덕산간이학교(溫井公立普通學校 附設 德山簡易學校)가 설립되었다.³⁴⁹

2) 울진지역 사립학교 설립 운동과 제동학교

일제는 애국계몽운동기 민족 교육을 고취시키고,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홍학교와 대응학교는 폐교 처리하고, 명동학교와 평명학교는 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해 식민교육을 확산하는 데 이용했다. 따라서 1910년대 울진 지역에서 사립교육기관은 거의 명맥이 끊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운데 지방 유지들이 힘을 합쳐 기성면 정명리에 정명학교를 1911년 4월에 세웠으나 1912년 운영난으로 인해 폐교되었다.

울진강습소(蔚珍講習所)는 1922년 8월 개교했다. 울진청년회장 전영직(田永稷)·임원화(林元華)·장인환(張仁煥)·장식(張植)·노기일(盧箕一)·전영경(田永璟)·장용석(張龍錫)·김병인(金炳仁)·장계윤(張桂允)·주진철(朱鎮喆) 등이 발기해 설립되었다. 교사 장용석·이우석·³⁵⁰ 주진걸·진근의 등이 열심히 교수해 수백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³⁵¹ 1925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1925년 정식 사립학교로 인정을 받아 사립 제동학교(濟東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였다.³⁵²

일제강점기 울진지역에서 일어난 고려혁명당사건, 조선독립공작당사건, 유헬포발견사건 등을 일으킨 인물들 가운데 여러 명이 제동학교 출신이다.³⁵³

일제는 1943년부터 사립학교들을 폐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제동학교도 1943년(癸未)

346. 『朝鮮總督府 官報』2206 昭和9年 5月 21日「昭和9年5月4日附左記公立普通學校附設簡易學校設置ノ件認可セリ」

347. 『朝鮮總督府 官報』2562 昭和10年 07月 27日「昭和10年7月6日左ノ公立普通學校附設簡易學校設置ノ件認可セリ」

348. 『朝鮮總督府 官報』昭和11年 07月 04日

349. 『朝鮮總督府 官報』昭和12年 07月 13日

350. 이우석은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재직하다가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년간 노동에 종사하면 공부하다가 1924년 귀국했다. 울진강습소가 세워지자 울진강습소에서 무보수로 교편을 잡았다. (『조선일보』1925년 7월 8일 「蔚珍講習所有望」)

351. 『時代日報』1924년 12월 26일, 「蔚珍講習所成」; 울진군, 1994, 『울진군지』, 521쪽

352. 『조선일보』1925년 5월 9일, 「講習所를 學校로 蔚珍의 教育熱」; 1925년 11월 8일, 「蔚珍濟東 開校」

353. 울진군, 1994, 『울진군지』, 521쪽

봄에 20년 동안 수많은 영재를 배출하던 학교의 역사를 남기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를 당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재학생 700여 명은 울진동공립국민학교에 편입하였다. 폐교 당시 후원회장의 비장한 폐교사와 교장 이하 전 교직원들은 비통한 울분을 억제하면서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격려하면서 작별하던 모습과 설립자 일동의 분노와 애절한 마음의 표현들은 잊지 못할 것이었고 더욱 새로워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제동학교를 복교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1959년 여름 휴가철에 울진 문화관에서 제동학교 동창회를 개최하였다. 설립자, 교직원, 동창들은 거의가 백발이 물들어 있었는데 회원 중에는 민의원·도의원·면의원·독농가·해양가·어촌계장·기관장·어조이사·농협조합장·운수사업가·대학 교수·중앙청 사무관·초·중등교장·교사·장학사·경찰관·형무관·장교·면장·구장·주사·기사·은행원·대학생·철도원·집배원 등의 전·현직에 있었고 개중에는 항일 투쟁을 한 옥중 수난자와 독립 투사도 적지 않았다. 이 자리에 모인 동창들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역경을 이기고 굳건히 살아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원거리 회원들은 축전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동문들이 모여 불러본 제동학교 교가 “산 높고 바다 넓은 화려 강산은 예부터 우리 선조 터발이로다. 장하다 우리 학교 설립 종소리 선사의 옛 꿈을 깨치로다.” 1·2절을 불렀다.³⁵⁴

1962년에 와서 교육가 방병주(方炳周)와 제동학교 동창회원인 임대득(林大得)의 명의로 울진제동중학원을 설립인가를 얻어 3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제동학교 졸업생 장성업(張聖業)이 거액을 기부하였다. 근남면 노음리에 대지 4,256평과 628평의 교사를 신축하고, 제동실업학교로 운영을 했다. 1972년 6월 학교법인 제동학원 인가를 받아 장성업이 제동중학교 초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운영하였다.³⁵⁵ 제동중학교는 해방 이후 경상북도 울진지역 최초의 사립 중학교가 되었다. 이후 농촌 인구의 급감으로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07년 2월 28일 폐교되었다.³⁵⁶

【울진제동학교 유적비문】

인류의 문화 발전과 그 향상은 어떤 자극 없이는 이룩되지 않는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충절과 예절을 받들고 학문을 숭상해 온 문향(文鄉)으로서도 이름이 높다. 이 나라에서 처음 개화의 물결이 일고 출렁일 때 우리 고을에도 진작 애국 지사 백운(白雲) 주진수(朱鎮洙), 국오(菊鳩) 황만영(黃萬英) 두 분 선각자들에 의해 매화 만흥학교(晚興學校)와 사동 대흥학교(大興學校)가 창설되어 이는 새 시대 새 조류를 맞은 이 고장 새 교육의 한 장을 열미었다. 그

354. 울진약사편찬위원회, 2002, 『울진약사』, 울진문화원, 421~424쪽

355. 울진군, 1994, 『울진군지』, 522쪽

356. 한국학중앙연구원, 『울진제동학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일

러나 경술국치(國恥)와 더불어 민족 사학은 폐쇄당하고 일제하에서의 울진의 명동(明東)학교와 평해의 평명(平明)학교가 문을 여니 이는 모두 일본인 교장 하의 식민지 교육을 강요받던 이른바 그들 공립 보통학교의 전신이었다. 울진향사에 의하면 이곳 선비들과 입향시조들은 국가 변란에 처하여 충의와 정신은 계속 이어져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도 기미년 독립 만세 운동을 비롯하여 국외의 고려 혁명당 사건, 조선독립 공작당 사건, 그리고 제동학교 음료정(飲料井)의 육혈포(六穴砲) 사건, 울진 흑두건 사건 등 크게는 민족적 대사건에서 작게는 몇 사람에 의한 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열들은 항상 이 민족의 선두에서 저항하고 그 의기를 떨쳤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자 바야흐로 세계 정세는 약소 민족의 편에서 민족 자결과 해방을 손짓하니 이는 곧 우리 민족에겐 기미년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일제는 세계 여론에 위축된 나머지 잠시 가혹한 총독 무단 정치를 중지하고 문화 회유책을 써서 이 땅의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방임하는 한편 교육 기관으로서도 사설 강습소와 유치원학원 학교의 설립을 인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울진 청년회 간부들은 의기를 모아 울진에 강습소를 창립하고 그 후 3년 만인 서기 1925년 울진제동학교로 승격 개칭하니 이는 일찌기 만홍과 대홍의 정신을 이음이요 일제의 질경 속에 배태된 난산의 분만이기도 하였다.

제동학교는 일인 교장하의 공립보통학교와는 달리 이미 기회를 잃고 방황하며 배움을 갈구하던 청장년에서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이 고장 문화의 산실이자 사상의 진원으로서 술한 인재를 양성하니, 이것이 일제하의 제동의 한 궁지였고 운명이었다. 저들이 일으킨 세계 제2차 대전이 종국에 이르러 패색이 짙자 그들은 유일한 우리의 민족 사학을 폐쇄하고 1943년 울진공립보통학교에 이를 강제 합병시키고 말았다. 조국 광복과 더불어 졸업생 동지들에 의해 제동중학교는 동문 고 장성업(張聖業)씨를 주축으로 다시 노음(老音)벌에서 그 불씨를 피우니 이는 이 고장 민족 사학의 요람으로서 그 의지를 현현(顯現)함이며 향토 교육의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이로다. 간단히 그 역사를 이 유적비에 새겨 이를 기념하고자 한다.

서기 1988년 8월 15일

글 동문 문학박사 장한기(張漢基)

울진제동학교유적비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임삼조